금융위원회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0. 13.(목) 09:30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	책임자	과 장	이동엽 (02-2100-2530)
		담당자	사무관	송희경 (02-2100-2531)

김소영 부위원장, 제5차 「금융리스크 대응 TF」 회의 개최

- 디지털 · 플랫폼 금융 확산과 잠재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안 점검 -

주요 내용

□ 금번 **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**를 통해 **다음의 사항**을 논의

① **디지털금융 확대**에 따른 **잠재위험요인**과 **리스크 관리 방안**

② **금융회사**의 **제3자 업무위탁 · 제휴** 관련 **리스크 요인과 규율체계**

③ **디지털 지급수단의 성장과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 과제**

1 회의 개요

□ **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**은 '22.10.13일(목) 유관기관과 함께 **제5차*** **「금융리스크 대응 TF」 회의**를 **개최**하여 **금융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** 등 **큰 변화 속에 잠재**해 있는 **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**을 논의하였습니다.

* 앞서 1~4차 회의는 각각 5.18일 · 6.23일 · 7.26일 · 8.31일에 개최(금융위 보도자료 참조)

- **일시·장소** : '22.10.13일 (목) 09:30~11:00,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- **참석**
  - **금융위원회 부위원장**(주재), 사무처장, 관련 국장
  - **금융감독원** 수석부원장 및 관련 국장, **예금보험공사** 부사장
  - **한국은행** 금융결제국장, **금융연구원**
- **논의내용** : 디지털·플랫폼 금융의 확산에 따른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 등

2 주요 논의내용

□ **김소영 부위원장**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**핀테크·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**시켜 **금융혁신을 촉진**하고 **소비자 편익도 향상**시켜 왔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○ 다만, **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**하고 **지속가능**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,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**이면에 잠재할 수 있는 리스크**를 **선제적으로 예측**하고 **대응**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김소영 부위원장은 **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**이고, 그 속도가 빠르므로 **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**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**다양한 각도에서 점검**할 필요가 있으며,

○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한국은행·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**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**하여 **디지털금융의 잠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**을 **미시적·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**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□ 오늘 회의에서는 「**금융의 디지털화·플랫폼화의 진전**」과 「**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**」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**리스크 요인** 및 **금융감독 이슈** 등을 **관계기관**이 **공유**하고 **논의**하였습니다.

❶ 우선, **핀테크·빅테크의 성장**에 따라 발생가능한 **잠재리스크 요인**을 점검하고, **대응방향**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예컨대, **핀테크**는 **새로운 기술혁신**을 **금융서비스에 빠르게 접목**하고 **빅테크**는 **온라인 플랫폼의 대고객 접점과 영향력**을 활용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성장경로가 예상되는 만큼, 관련 **영업·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에 적합**한 **감독체계의 정립**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*.

* (**영업·운영리스크**) ①IT기술 이용에 따른 리스크(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추천·연결하는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), ②불완전 판매 가능성, ③빅테크 그룹內 위험 전이 등
(**시장리스크**) ①금융시장 경쟁 격화, ②특정상품 쏠림현상 등

❷ **금융회사**의 비금융회사 등 **제3자 업무위탁·제휴** 증가에 따른 **리스크 요인**과 **규율체계**도 점검하였습니다.

- 금융회사가 대출·카드모집, 정보처리 등 **일부 업무를 제3자**에게 **위탁하여 수행**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**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***에 주목하고,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**직·간접 감독강화 방안**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
> * (**영업·운영리스크**) ①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이 일부 수탁사(핀테크·빅테크사)에 집중,
> ②금융회사와 수탁자간 규제격차 등
> (**시장리스크**) 금융회사와 수탁사(비금융회사)간 상호 연계성 강화에 따른 리스크 전이 등

❸ 또한, 최근 이용이 확대된 **결제서비스**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바,

- **선불지급수단**[1]과 관련하여 **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** 등 보완방안 마련과 **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지급서비스**(간편결제 등)에 따른 **리스크 요인**[2]과 이에 대한 **대응방안**도 논의하였습니다.

1) 예시 : 네이버선불충전금(네이버페이), 카카오선불충전금(카카오페이) 등
2) 예시 : 선불지급수단 이용자예탁금 보호 미흡(상환불이행 위험 등), 비금융사 지급결제 서비스의 보안사고(고객정보 유출 등) 우려 등

3 향후 추진계획

□ 금일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**새로운 기술이 활용**될 때, **금융혁신**과 **금융소비자 보호, 금융안정**이 **균형점**을 찾을 수 있도록

○ 앞으로도 **국내외 디지털·플랫폼 금융 확산 추이, 국제동향**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, 대응방안을 **관계기관과 함께 논의**해 나갈 것입니다.

□ 한편, 다음 **제6차 「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**(11월 개최 예정)」에서는 **부동산 관련 현황, 잠재 리스크 및 향후 관리방향** 등을 **논의**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	책임자	과 장	이동엽	(02-2100-2530)
		담당자	사무관	송희경	(02-2100-2531)
			사무관	최민혁	(02-2100-2534)

<공동>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	책임자	과 장	김종훈	(02-2100-29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은진	(02-2100-2971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	고상범	(02-2100-2850)
		담당자	사무관	윤영주	(02-2100-2851)
			사무관	김수아	(02-2100-2906)
<공동>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책임자	국 장	이창운	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류영호	(02-3145-8001)
<공동>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	책임자	국 장	김용태	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김택주	(02-3145-7125)
<공동>	예금보험공사 금융산업1부	책임자	부 장	유형철	(02-758-0901)
		담당자	팀 장	정승훈	(02-758-092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